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도지사·교육감 후보들



①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전 11시경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도 투표를 하고 있다. ③김윤태 전북도교육감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④서거서 전북도교육감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⑤천호성 전북도교육감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같은 날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전북,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4.41%

도내 6개 기초단체 40%대 넘어

순창·무주·진안·임실·장수·고창 등 민주·무소속 후보 '맞붙' 지역 조직총동원

지난 27~28일 양일간 진행된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전북은 24.41%의 투표율을 보였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 등 6개 지역의 경우는 40%를 넘어 서기도 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역 유권자 153만2133명 중 37만4020명이 사전투표를 마쳐 24.4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4년전인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7.81%에 비해서는 3.4%p 낮은 수치다. 기초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자신의 선거구 밖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10만 3,498명으로 전체 사전투표자수의 27.67%였다.

관내사전투표자수는 27만522명으로 72.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시·군별로는 순창군이 49.75%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전주시 덕진구가 16.78%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에 그쳤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순창군을 비롯해 무주(47.349%), 진안(44.26%), 임실(44.03%), 장수(43.70%), 고창(43.53%) 등은 투표율이 40%를 넘어섰다. 이들 지역 상당수는 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여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는 지역들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지역내 조직력을 총동원, 사전투표를 독려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선은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관심도와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지층 결집력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대 투표율을 보인 순창군수 선거는 최영일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공천 배제를 딛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공천을 받은 최기환 후보와 혈투를 벌이는 곳이다. 장수군수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장영수 현 군수가 무소속으로 나서 민주당 최훈식 후보와 격돌한다. 특히, 최근 불거진 금품 수수 의혹에 두 후보간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임실군수 선거는 3선 도전에 나선 무소속 심민군수가 민주당 공천을 받은 한병락 후보와 맞붙는다. 이와 함께 고창군수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유기상 후보에 맞서

민주당 심덕섭 후보가 제지에 나섰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29일 "무소속 단체장 후보들의 조직력이 만만치 않고 사전투표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40%대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기초단체장 지역구 인구수가 5만 명대 이하인 지역이 많아 지지층의 투표 참여율이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전북지역 지선은 경선 과정을 거치며 민주당 대 무소속 구도로 재편됐다. 전북은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승리를 거두느냐에 따라 선거 승패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한편 투표함(관내·관외·거소투표)은 선거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 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된다. /유호상 기자

'람사르습지도시' 고창

상임위서 인증 획득... 전북 자연유산 우수성 재입증

운곡습지, 고창갯벌 등 우수 생태자원을 보유한 고창군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돼 전북 자연유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도는 지난 28일 스위스 클랑에서 개최된 제59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고창군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전 세계 13개국 25개 도시의 인증이 확정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창군을 비롯한 서귀포, 충남 서천군이 신규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됐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한 도시(마을)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 과정 등에서 내륙과 연안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훼손지의 지속적인 복원사업 등의 노력이 높이 평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관련 브랜드의 다양한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증으로 람사르습지도시 브랜드를 지역 특산물, 생태관광 프로그램 홍보 등에 활용 가능함에 따라 특산품의 판매 증가와 생태체험을 위한 탐방객 증가 등으로 주민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습지의 보전·관리, 인식증진,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국비(연간 약 1억원)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도는 오는 2023년 서해안(고창, 부안) 유네스코 세계자연공원 인증 등 생태자원의 국제 브랜드 인증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 고창=김영식기자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2022
2022. 6. 2. - 6. 6.